잠시 숨을 돌리다

20051104 김가영

언제부터인가…… 갑갑한 회색 건물들 사이 빡빡한 과제 더미 사이
숨도 돌리지 못한 채
나는 그렇게 조금씩 세상 속에서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다.

조금씩 늘어가는 한숨들 조금씩 늘어가는 탄식들
어느새 나를 잃고 세상에 눈을 맞추며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커다랗게 펼쳐진
또 다른 세상…….

나는 어느새 송순의 면앙정에서 세상을 잊은 채
그렇게 잠시 숨을 돌렸다. 그렇게 잠시 세상을 잊어갔다.

자연이 주는 선물

20061103 강 정 우

풍성한
대나무 숲 사이사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눈부신 햇살

햇살이
선물을 주는 듯
반짝이는 강물

아!
이 아름다운 면앙정에서
안빈낙도하며
살고 싶어라.

동백꽃 떨어질 때

20011173 최 문관

겨울을 이겨내어
나무에 핀 한 떨기 동백꽃은
그 도도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의 속삭임에
가녀린 잎 하나

톡! 떨어진다

하늘과 땅 그 혼돈의 사이
헤어짐과 만남의 기로
방황과 낯설음 속에서
살랑살랑 몸을 흔든다

상처 난 붉은 볼 간직한 채
처마 밑 흙과 돌담에
어느새 내려앉아
사뿐이 꽃 피운다

세월이 머물다가 간 그 곳
(하늘이 높고 푸른 날 세연정에서….)

국어국문학과
20051108 김은희

적막한 하늬바람 붙잡고,
찾아간 시간의 공간 속에 오랜 세월 베어
덩그러니 놓아둔 당신의 보금자리.

위엄한 푸른 산 홑이불,
소리 내어 우-르고 있는 대나무 숲 사이에
수줍게 피어난 진달래.

흐르는 생명 샘물 찾아든, 둥지
없는 뻐꾸기 한 쌍은
어줍어 떠나-르 마음만 조리는구나.

여기,
그 어느 이가 살아간단 말이요.[1)]

---

1) 세연정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떠나 이런 평온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내 속된 모습이 그곳과 과연 어울릴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성산별곡에 대한 시

20061104 곽호윤

식영정에 가봤더니 정철은 없고
주인 없는 정자만 있구나
정자야 너의 주인은 어디가고
너만 남아 외롭게 이곳을 지키는거냐
주인없는 정자에 구슬픈 바람만 분다

竹林

20021121 박건욱

네모난 박스 안에서
울렁거림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싸움
1 라운드가 끝나니
중력에 반항하는 2 라운드 시작
서원에서의 휴식시간에 아예 눈을 감았다

사르르르 사르르르 소리에 눈을 뜨니
하늘과 얘기하는 죽림이 내는 소리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듣는 사람마저 시원하고 평안하다

어느 옛 문인이 여기 있었던 것은
정치인보다 죽림과 얘기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보다

소쇄원의 아침

20061106 김반야

대나무
사이로 내리 쬐는 햇빛

그 속의
봄빛들도
절개도 피어난다.

고고한
진달래들도

산들 산들
봄을 반긴다

한(恨)

20051112 김진규

작은 비문 하나
남은건 그것 하나뿐.
아아, 세월의 무책임한 힘이여
너의 무지함을 아는가 ?

칼날같은 세월에 찢겨져나간
면앙정의 살과 피.....
앙상히 뼈만남은 면앙정.....
위로라도 하듯 황홀하다 못해 무섭기까지한 경치여.....

어느 화가의 그림

20061108 김은경

분홍물감으로 온 세상을 그리고
하늘색 물감으로 파란 하늘을 그리고
내 마음은 노란 물감으로 설레임을 그린다.

김남주의 묘지에선 붉은 물감으로
시인의 투혼을 그리고
보길도 앞바다는 파란 물감으로
깊고 깊은 바다를그리고
윤선도의 녹우당엔 동백꽃의 다홍물감으로
아름다움을 그린다.

어떤 화가의 작품인지.
남도는 시대를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풍 류

20011129 백동호

내가 갈 곳은 어디일까?
한 칸의 버스에 몸을 싣고 아스팔트 위를 달린다.
뜨거운 인간의 흔적 위를 지나
한쪽 모퉁이 차가운 흙을 밟는다.
시원함.....
평온함.....
안락함.....
살랑이는 버드나무 가지에
그리운 옛 추억이 흩날린다.
흔들리는 가지처럼 흔들리는 기억
바람과 함께 이내 스쳐가지만
눈앞에 펼쳐진 녹색풍경 같이
긴 여운을 남긴다.
도시를 떠나 한줌의 흙을 밟고
떠오르는 기억들 내가
갈 곳은 어디였을까?
인간의 손짓이 닿지 않은 이 순수함에
나의 염원을 남기고 떠난다.

취중해 (醉中海)

20051110 김지섭

시작도 막막한 곳에서
막연한 끝을 짚어가며
조금이라도 끝으로 가보겠다고
끝에 끝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초올싹 촐싹 보채기는’

나는 술병이 돼나서
기울어지는가 보다
차갑게 식은 미역국
너무 짠 해물탕
안주거리도 못 되는 것이 해도
한 숟갈 더 두 숟갈 더 하다
끝에 닿는다

기회

20051115 박나영.

아직 농익은 봄이 덜 가까워 아침과 저녁, 살 끝에 닿는 바람이 스산한 4 월에 나는 전라남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담았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아랫 지방에 가게 됐다니... 그 설레임에 내가 낯선 사람들과 환경에 익숙치 못하는 사실마저 잊게 해주었다.

파릇한 새벽부터 잠에 깨어 분주했던 탓에 쉬이 잠이 들어 한참 후에 깨어보니 벌써 절반은 달리고 있었다. 이색적인 창밖 풍경이었다. 몇 시간 아래로 내려왔을 뿐인데 그토록 다른 풍취를 띄고 있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같은 봄이 그처럼 다를 수 있을까. 고속도로 곁으로 스치는 산과 나무, 꽃,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는 모든 사물과 쬐여 내리는 햇발마저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문학인들의 생가와 문학속의 실제 배경을 따라가보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 했다. 기대를 끌어안으며 빠르게 이 땅의 끝자락에 닿아 갔다.

담양에 들려 면앙정과 소쇄원, 김남주의 묘소와 식영정 등을 돌아본 후 늦은 저녁 무렵에야 땅끝 마을인 해남에 도착하였다. 새까만 밤인 탓에 주위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코 끝으로 느껴지는 짠 맛에 바로 근처가 바다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하고 보길도로 들어가기 위해 배에 올랐다. 어제의 짐작과 같이 역시 몇 걸음 걸으니 바다가 보였다. 남해가 주는 바람이 쾌청하여 사람들과 기분 좋게 어울리다 보니 벌써 보길도 항구인 청별항에 도착해 있었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가 은거생활을 하였던 곳이라 했다. 그 때문인지 더욱 조용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길도 내에 버스를 타고 조금 들어가 보니 섬이라기보다 아담한 마을 정도라 여기는 것이 더 어울릴 만큼 정겨웠다. 윤선도의 고택이었던 세연정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내가 옛날 어느 때 일쯤 와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길이 남을 가치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던 미(美)가 있으며 속세의 미련을 떨칠 만한 의미 있는 공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가파른 산을 타고 곡수당에 도착하였다. 산이 너무 험해서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을 정도 였는데 막상 목적지에 닿아 아래 경치를 바라보니 그 전경이 마음에 들어 조금 전 내 발이 내디뎠던 거친 산길이 잊혀 질 정도였다. 보길도의 전경이 내 시야에 전부 들어와 한 장의 유화를 보는듯한 느낌이었다. 고산 윤선도는 매일 그 곳에 올라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위에서 문학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를 깊이 여겼을 것이라.

보길도에서의 답사는 굉장히 뜻 깊어 아침부터 정오까지의 반나절이 30 분처럼 짧게 느껴졌을 정도이다. 간단한 점심을 끝낸 후 또 다시 배를 타고 섬을 나와 다른 곳으로 답사를 이어갔다. 순천만과 선암사, 하동 평사리 등등 최남단에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여러 문학인들의 정서적 배경들을 내 몸으로 절감하고 문학 작품 속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무대들을 둘러보니 책으로만 읽어 머릿속으로 묘사하며 이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뜻 깊은 경험이었다. 처음 가보았던 우리나라의 땅 끝, 처음 느꼈던 또 다른 봄의 풍경 그리고 실감나는 문학 체험까지 나에게 답사는 가치를 잔뜩 머금은 기회와도 같았다.

소쇄원의 봄날

20061112 김형규

벚꽃 찬란히
바람에 날리고
새하얀 구름은
하늘에 날린다.

광풍각에 스며드는 바람처럼
우리마음에 스며드는
선인들의 삶의 자세

선비가 거닐던 그 곳..
소쇄원...
그 곳에서 나도 한번 거닐고 싶어라...

2006, 김남주 묘소에 다녀와서

20051116 박영은

그곳을 바라보며 내 얼굴은
문득 저무는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저 그곳을 바라보며
나는
작은 미동조차 사치스레 느껴져
그저 가만히 서있기만 했다.

따뜻한 온기 머금은
타오르는 그때의 그 열기가
고스란히 내 피부에 전해져 왔다.

그 기운은 애무하듯
내 온몸을 휘감으며
그렇게 내 넋을 멍하게 했다.

말라비틀어진 내 가슴,
그 가슴 속 무언가가
문득 움직거렸다.

생각날 때마다 터질 듯
움직거리는 심장을
손으로 주물거리며
난
순간순간마다 그 곳을 기억하고 싶다.

세연정과 윤선도

20011147 이상구

세연정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신선이 노닐다 떠나간 자리라 착각이 든다. 물의 색은 박물관에서나 볼법한 청자의 비취색과 흡사하고, 대비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점 찍어 놓은듯, 백일홍의 붉은 꽃잎이 떠다니고 있었다. 백일홍의 꽃 향기는 진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윽한 향기를 뿜으며 보길도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하다. 사실 이 향이 보길도의 향기인지, 세연정의 분위기인지, 백일홍과 연못의 향기인지 구별할 수는 없다.

세연정의 아름다움은 깍고, 세우고, 심어 놓은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공적인 경관보다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 두 망막에 비친 풍경은 자연스럽진 않아도 자연의 모습보다 뛰어난 경관과 조화를 만들어 냈다. 물길을 만드는 것은 인공적인 것일 테지만 물의 빛깔을 내는 것은 자연 스스로 이다. 동백꽃을 심어다 놓은 것은 인부의 손에 의해서지만 그것이 또렷한 붉은 빛을 내며 개화 된 것 또한 스스로 된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물론 세연정의 모든 경관을 고산이 만든 것 은 아니라 한다. 세연정의 분위기는 다소 사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업적, 그의 품성 등을 고려할 때 세연정과 윤선도는 딱 들어맞는 부분이 없다고 봐 도 될 것이다. 자연을 세연정의 청초한 모습이라 할 때, 인공은 세연정의 화려함이라 할 수 있다. 청초한 자연과 화려한 인공의 기술이 조합된 이 세연정은 내 가슴과 머리를 마구 혼 돈의 세계로 빠지게 한다. 완전한 자연미의 고귀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일까? 인공 기술로 인 한 세련미야 말로 예술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산도 바로 이 점을 고려해 인위적인 것을 적당히 하고 세연정의 자연미를 강조하여 만들었고 그 후에 후대사람들에 의해 더욱 인 공적인 기술을 가미해 지금의 세연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누군가 지나가며 주절이는 얘기를 들었다.

세연정은 고산의 쉼터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그래서 마치 치외법권의 공간 또는 삼한의 '소도'처럼 어떠한 악의 기운도 뻗치지 못할 공간이라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은 안정을 찾는다. 동시에 관광객들의 눈은 세연정 구석구석에 번갈아 머물고 발길은 떨어질 줄 모른다. 셔터를 누르기 위해 뷰파인더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단지 검지에 힘을 주어 적당히 누르기만 하면 작품이 된다. 카메라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구도를 잡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세연정을 둘러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바위에 걸터앉아 과거로 여행을 떠나본다. 고산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품고 그것을 잊기 위해, 또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영혼의 안식처로 매일 이 곳을 찾는다. 세연지에 떠다니는 동백꽃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쪽의 님을 두고 떠나온 고산의 심정은 어떠할까? 잠시 상상을 해보다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눈을 떠보니 세연정의 경관은 어떠한 근심걱정은 물론 고뇌를 짊어지고 있다가도 떠내려가는 동백꽃처럼 자연히 융화되어 흘러갔을 것이라 느껴진다.

세연정이 없었다면 역사에 남는 고산은 흐릿한 기억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다. 세연정이 있었기에 고산의 명작이 탄생하였고, 고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나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남겨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자연과 융화된 고산은 곧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연정의 모습과 진정 닮았다 할 수 있다.

'고산 윤선도', 그는 지금 이 곳에 나와 같이 앉아 자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상에서 보내는 편지

20061113 문솔빈

오늘 나는 이 정각에 서서
그의 정신을 되새겨본다.
신선이 살 것 같다는 이름답게
나는 이 풍경을 가히 최고라
칭하고 싶다.

정상에 올라서서 부용동을
한눈에 내려다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윤선도 선생도 나와 같은
기분이셨을까...

자연에 둘러싸인 이 기분
이 곳에 올라와 느끼는 상쾌한 바람
그 분도 나와 같은 바람을
느끼셨을까...

땅끝으로 간다

20061114 박나라

어제의 피로를 다 씻어주는
아침 바닷바람과 함께
나는 땅끝을 향해 간다.

돌길을 따라 다람쥐와 걷다보면
나무사이로 다가오는
넓은 바다와 함께
나는 땅끝을 향해 간다.

무진

20061115 박정성

그곳에 서있었다
바람의 속삭임
머무는 곳

그곳에 서있었다
길없는 다리 아래
머뭄 없는

그곳에 서있었다
갈대 안개의 숲
잔잔히 흐르는

그곳에 서있었다

전남 남부지역을 다녀와서..

20061117 변현지

4 월 5 일~8 일까지 3 박 4 일 동안 우리는 전남 남부지역 탐방을 하였다. 4 월 5 일 우리는 학교의 연암관 앞에서 모여 관광 버스를 2 대를 타고 전라남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는 들떠 있었다. 9 시쯤 학교에서 출발하여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전라남도 담양에 도착하였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담양에 있는 면앙정가 시비에 도착하여 면앙정가를 살펴보며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관찰했다. 면앙정이 공사중이라 조금 아쉬웠다. 그 다음으로 버스를 타고 송강정에 도착하여 '사미인곡'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사미인곡에 대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보니 더욱 더 신기하였다. 30 분 정도 구경하다가 구묘 역에 있는 김남주 묘소에 도착하여 묵념을 하고 다시 돌아와 식영정에 도착하여 성산별곡 시비를 보았다. 산 위에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상쾌했고 또한 그 경치가 너무 멋있었다. 그 다음 소쇄원으로 가서 조별 관람을 했는데 사진도 많이 찍고 경치도 멋있었는데 그 곳에 우리 선조가 지은 이유가 이해되었다. 담양으로 가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보길도 청별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갔다. 세연정에 가서 '어부사시사'에 대한 발표를 듣고 나는 너무나 오길 잘 했다고 느꼈다. '어부사시사'에 대해 배우기만 해서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 곳에 와서 생각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어 정말 좋았다. 보길도에는 세연정과 곡수당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배경이었다. 그 다음 동천석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동천석실은 산 중턱에 있는 거라 그 위험한 산을 올라갔다. 너무나 힘들고 험해서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나는 한 번 가보고 싶어서 끝까지 갔다. 동천석실에 도착하여 산 아래를 내려보았는데 과연 명당이였다. 그 곳까지 올라와 시를 쓰고 한 선비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경치를 보며 이래서 이 험한 곳까지 올라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 토말에 도착하여 고정희의 생가에 도착하였다. '상한영혼을 위하여'의 시 한편이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집안에는 고정희의 서재가 눈에 띄었다. 그 다음코스로 윤선도의 녹우당에 도착하여 '오우가'의 시비를 보고 다산초당에 도착하여 '애절양'과 '전 론'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 해남 숙소에 도착하여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셋째날, 해남을 출발하여 강진에 있는 김영랑의 생가에 도착하여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부용교와 홍교를 갔다가 순천 대대포에 도착하여 '무진기행'의 무대가 된 곳에도 갔다. 순천 대대포에는 갈대 숲 사이로 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갈대가 움직이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다. 승선교에도 가고 조정래 생가터, 선암사에도 갔는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 곳에서 마시는 물은 가히 꿀맛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마지막 탐방 일이 되었다. 너무나 아쉬웠다. 우리들은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에 가서 조태일 시인의 시집들을 관람하고 '역마'의 배경이 된 화개장터에 멈추기로 되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좀 아쉬웠다. 그 다음으로 하동평사리에 있는 '토지'를 찍은 최참판댁에서 발표를 마치고 그렇게 마지막 탐방은 끝이 났다.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오는 데 전라남도 남부지역에 있는 많은 곳들을 탐방하고 왔다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고 다음 기회가 오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이번 탐방에서 그저 놀러왔다는 생각도 많았는 데 다음 번에는 더 진지하게 탐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번 탐방을 통해 지식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51118 박정은

국문과 동기들과 3 박 4 일의 전남의 고된 답사일정을 함께한 한국문학탐방수업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 이 수업을 수강한 이유는 작가들의 작품의 배경, 유적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더 작품을 가깝게 느끼며 작가와 같은 마음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싶었던 이유와 국문과 선후배 동기들과 같이 힘겨운 여정을 견디며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이 과목을 선택하였다. 또 전라남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부록도 딸려 오는 것도 좋은 기회였다.

답사기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닐 수 있었다. 작가의 생가와 작가의 묘지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 등은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비록 우리는 아직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작은 학생들이지만 과거의 선배님들이 느꼈을 시적 영감 등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작가의 고향을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 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작가와 같이 느낄 수 있었고 작가의 생각 느낌 정서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눈으로 확인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받은 느낌과 소중한 체험은 나의 문학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내 창작의 씨앗에 거름을 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작가의 눈이 되어 작가의 느낌을 상상하게 되었고 답사의 체험은 내 시적영감이나 문학적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이 되는 갈대밭이다. 끝없이 황금색으로 바다 물결을 이루는 갈대밭의 풍경은 무진기행 소설의 영상을 스치게 해주었고 아름다운 풍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주인공이 갈등하고 회상을 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느끼게 해준 갈대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소설 속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힘도 들고 빡빡한 여정에 힘도 들었지만 작가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소중한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학작품의 이해도나 학습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우들의 발표만을 통해서는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의 게으름에 많은 문학 작품 등을 놓치고 오기도 했지만 다음에 이루어지는 한국문학탐방수업은 충분히 사전지식을 공부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쉬운 것만큼 얻은 것도 많아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 한 번 참여한다면 좀 더 성숙한 태도와 준비된 학습으로 더 나은 탐방을 다녀오고 싶다.

바람이 생소히 부는 밤

20051117 박 은 희

어둠에 녹은 달빛이
수면에 비쳐 반짝일 때
저 먼 지평선 너머로
모든 것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바람은 조용히 내 머리를
스치 우며 지나갔다

섬진강

20041180 진회선

경상도의 것인가?
전라도의 것인가?
누구의 젖줄인가?
대답할 이 없네

그저 말없이 고요하고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줄 뿐
그저 조용하게 흐르기만 하네

저기 저 화개장터 사람들에게
묻고 싶지만...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잎들만
바라볼 뿐...

＊ 이번 답사때 섬진강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시로 써 보았다. 시간이 없어 차에서 내려 구경은 못했지만, 버스 안에서만 바라본 풍경이 꽤 멋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시로 표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섬진강 유역, 화개장터를 자세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배

20061116 박지운

내 몸을 난간위에 기대고 바다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귀를 기울이다보면 태양이 날
보고 웃어요 난 태양을 보고
찡그리죠

손가락을 쫙 펴면
바람이 내 손을 간지럽혀요

내 몸을 바람에게 맡길 때 난
떠오르는 걸 느껴요

이 순간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自然主義

<세연정에서>

20051126 우윤지

바람과 대나무의
속삭이는 담소소리에 귀
기울이다 메아리쳐
울리우는 영롱한 새소리는 내
맘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고
내 마음 따라 간 곳에
명경(明鏡) 같은 물도
고요히 울려 퍼진다.

정약용의 숨결이 느껴진다

20061119 손진희

한개 한개 계단길을 올라간다.

사치스럽지않은
풍경 속 그가 숨쉬고 있다.

때묻지 않은 맑은 빛이 드리우면
그의
숨결이 느껴진다.

실학을 중심사상으로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 했던 그의 배려가
숨겨져 있다.

지금은 고이 잠든 그의 숨결이 그의
생가에서 느껴진다.

그를 느끼고 나는
한 개 한 개
계단 길을 내려간다

그 바람 여기 있으니

20051119 박진희

초가지붕 사이 오락가락 돌風이 층계의
돌계단을 낳고

돌계단 밟아
순간 나 이곳에 정지하니

내 心안으로 작열하는
푸른 구름 생기어,
소설을 낳고 시를
낳고
나를 낳고 나를 낳아

그래
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微風을 연연히 불러 세워

정취에 마음 두어
구름이 흐트러지면
時計속
바람과 함께
푸르러서
다시 나를 찾아오게- 한다

초가지붕 사이 오락가락 돌풍이 층계의
돌계단을 낳아,

* 정약용의 다산초당을 올라가는 나무층계와 돌층계를 떠올리며 지은 시입니다. 다산초당에 오르면서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여유로움과 한가함, 땀 흘리고 올라간 보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산기슭에서 불어 오는 바람이 소나무냄새가 느껴지는 듯 하여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느낀 그대로 열심히 표현하였습니다. ^_ ^

달과 함께

20051130 이민혁

여름 한낮, 툇마루에서 바람을 느껴본다. 바다 내음과 나무의 향이 섞여있는 바람을 느낄 때면 나는 그 때가 떠오른다. 보름달이 떠오른 그 날의 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곤 한다. 보름달이 밤하늘 중앙에 걸려있을 무렵,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 나는 좀 더 보름달에 가까이 가고 싶어졌다. 그 때 생각난 것이 얼마 전에 지은 정자였다. 그곳이라면 달을 가까이 할 수 있으렷다 싶어서 탁주 한 병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중턱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새 내 몸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등줄기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느껴졌다. 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 무거워진 다리를 내딛었다.

바위를 끼고 돌자 나무와 돌뿐이던 세상은 평평한 대지와 그 위에 우뚝 서있는 정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보름달이 동그란 자태를 뽐내며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정자에 자리를 잡고 가지고 온 잔에 탁주를 부어 달을 보며 한 잔 들이켰다. 쌀의 고소함과 몽롱함, 풀벌레들의 아름다운 울음소리, 그리고 달의 새하얀 빛이 내 목구멍으로 조화를 이루며 빨려 들어갔다. 순간 내 입에선 신음이 흘러나왔다. 여기 온 걸 정말로 행운으로 생각하고 싶어졌다. 한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개운함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좋았다.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이런 나를 새하얀 빛으로 달은 감싸주고 있었다. 마치 내 자신이 이태백이 된 듯 나는 술기운에 노래를 부르며 달을 찬양하였다. 어느새 달과 정자, 그리고 내 주변의 사물들이 내 벗이 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에 화답하고 싶어졌다. 마지막 잔을 가득 채우고 높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단번에 들이켰다.

땅 끝

20061123 안준호

끝없이 그려놓은
걷지 못하는 땅이
보이는 이 곳
땅 끝

출렁이는 땅과
눈부신
새 열정이
보이는 이 곳

22 년 묵힌
검고 무거운 것을
허락 없이
짊어지고 온 이 곳

내 보고 이 것을
이 곳이 놓고 가라하고
다시 채워야 할
빈 것을 가져가라 하는 곳

끝없는 출렁이는 땅과
끝없는 눈부신 열정이
보이는 이 곳
땅 끝

전남지역 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31140 유아미

새내기의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둔 4 학년이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몸소 느껴지는 요즘이다.

국어국문학과에 적을 둔지 4 년째로 접어드는 이때 나의 대학생활을 뒤돌아보니, 그래도 후 회되는 일이 많지는 않다. 특히 학과 생활에 있어서는 뿌듯함마저도 느낀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 이상, 여행을 다니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과에서 추진되었던 민속조사와 답사에 참여하며 강원도 일대와 전북, 전남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으니 값진 경험을 했음에 틀림없다.

작년 9 월, 전북지역을 갔을 때는 고전문학을 공부하며 알았던 여류시인 매창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었고, 서정주 문학관이나 채만식 문학관을 다녀왔던 경험은 현대문학 수업을 듣는 요즘,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책상 앞에만 앉아 수박 겉핥기 식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하는 데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답사를 하는 목표이며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외곽의 자연풍경과 탁 트인 바다, 산 내음, 바다 내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번 전남지역 답사는 대학시절 마지막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더욱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두 눈에 담아가려 애썼다. 남쪽이라 그런지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꽃들이 완연하게 피어있어 어디를 가든 그 꽃 내음에 기분 이 좋았다. 옛 시조에서 종종 굳은 절개에 빗대어 표현되던 담양의 곧은 대나무 숲, 국토 최 남단 해남의 땅끝마을, 보길도로 향하던 장보고호, 올라가느라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했던 동천석실, 고전작가론 발표를 하며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다산초당, 내 키만한 갈대가 인상적이었던 순천 대대포, 고즈넉하던 선암사까지. 모두 내 눈 속에, 마음속에, 또 추억이 될 사진 속에, 한 가득 담아왔다.

수업의 일환으로써의 의미를 넘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쉽게 찾아가기 힘들었을 곳들에 나의 발자취를 남기고 왔다는 사실이 더 없이 행복한 답사였다.

동백꽃

20051127 원수진

붉게 물들인 얼굴
윤기를 자랑하듯
뽐내는 자태로구나

낙화에도 뽐내는 자태 잃지 않아 붉은
비단을 깔아 놓는 구나

그 모습에 절로 매혹되어 내
곁에 두고두고 싶구나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와서,,,

20061122 안윤정

나는 3 월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시간표를 짰던 그때, 한국문학 탐방이라는 과목을 처음 보았다. '탐방' 이라는 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문학을 좋아했는데, 한국문학 탐방이라는 과목을 보자마자 수강 신청을 하였다. 탐방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드디어... 4 월 5 일... 교수님들, 선배님들, 친구들과 모두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4 월 5 일 학교를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은 담양이었다. 담양에서 점심을 먹고, 면앙정에 도착했다. 약간의 언덕길을 올라가 보니 시비가 있었다. 문학답사는 처음이라 마냥 신기 했다. 선배님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에 면앙정에서 30 분 떨어진 송강정에 도착했다. 역시 시비 앞에서 선배님의 발표가 끝나고, 사진도 찍고, 주변 구경도하였다. 경치가 매우 좋았고, 약간 높은 곳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더 멋있어 보였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기분도 좋아졌다. 그리고, 선배님들,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즐거웠다. 송강정을 출발해서 5. 18 구묘역에 도착해서 김남주의 묘소를 찾아갔다. 김남주의 묘소는 역시 운동가라서 그런지, 빨간 색이 강렬했고, 혁명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김남주의 시비를 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구경하다가 구묘역을 지나 식영정에 도착했다. 식영정에서도 역시 선배님들의 발표 후에 성산별곡 시비를 자세히 읽어 보았다. 조선 사대부들의 삶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다음 소세원에 도착해서 자유관람을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토말, 곧 땅끝에 도착했다. 탐방의 첫날은 그렇게 끝나갔다. 4 월 6 일,,, 아침을 먹고, 토말에서 출발해서 보길도 청별항에 도착했다. 보길도를 갈 때 배를 타고 갔다. 바다의 풍경도 너무 멋있었고, 바다냄새도 좋았다. 배에서 오춘택 교수님께서 사진도 찍어주셨다. 보길도에 도착해서 세연정 주차장, 시비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시비 앞에서 선배님이 발표를 하신 후에 낙서재에 갔다. 윤선도의 생활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천석실도 구경하였다. 청별항에서 점심을 먹고, 보길도를 출발해서 토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정희의 생가에 갔다. 고정희의 생가에서 발표를 하고, 발표 후 이곳저곳을 구경하였다. 고정희 생가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어서 고정희에 대해 이것저것 보며 많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녹우당에 갔다.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았고, 녹색정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녹우당에서 출발해서 다산 초당에 도착하였다. 다산 초당 오르 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 다산초당에서 '애절양'과 '전론'의 발표가 끝나고, 여기저기 구경하 였다. 힘들기도 하고, 피곤도 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흥미 있었다. 그리고 저녁 때, 해남 숙소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다. 답사 셋째 날, 늦잠을 잤다. 그래 서 땅끝에는 가보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었다. 해남에서 출발해서 30 분후 강진에 도착했다. 그리고, 김영랑 생가에 갔다. 김영랑의 유적을 내가 조사했기 때문에 김영랑 생가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다. 그리고,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에서 발표 후, 개인 활동이었는데, 사진도 찍고, 즐거웠다. 강진을 출발해서 벌교 에 도착했다. 태백산맥의 배경무대인 곳이었다. 그리고, 김범우의 집도 방문하였다. 그리고, 순천 대대포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가는 길에 벚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구경하면 서 기분이 좋아졌다. 순천 대대포는 무진기행의 무대가 되는 곳이었다. 무진기행은 영상으로 읽는 우리 소설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이라서 선배님이 발표할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갈대밭이 인상적이었다. 대대포를 출발해서 선암사 숙소에 도착했다.

그다음 짐을 풀고, 선암사에 갔다. 승선교도 보고, 조정래 생가터도 보고, 해우소도 봤다. 역시 사진도 찍었다. 선암사에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이렇게 탐방 세 번째 날도 지나갔다. 4 월 8 일... 탐방 마지막 날이다. 힘들기도 했지만,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침을 먹고 선암사에서 출발해서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에 들렀다. 발표를 하고, 문학 기념관을 구경하였는데, 조태일이라는 분에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태안사는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화개장터도 사람이 너무 붐비는 관계로 가지 못했다. 하동 평사리 최참판댁에 도착했다. 토지는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그리고,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TV 에서 봤던 것들도 보여서 반가웠다. 최참판 댁에서 출발해서 하동읍에 도착해서 점심으로 재첩국을 먹었다. 이렇게 모든 탐방일정을 마치고, 하동을 출발해서 춘천에 도착했다.

한국문학탐방... 힘들고 고된 여정 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싶었다.

벚꽃 방아

20051134 이한나

머리 위로 비추우는 달을 가리우고
귀를 열어두니 방아 소리 들리는데
왜 이리 잔잔한지
참 신기하다
가만히 들어보니
무언가 찧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지 어디 눈 뜨고 봐 볼까나
하고 보니 벚꽃 잎들이 뭐 저리도 많은지
여기저기저기여기 퍼져 있다
과연, 그 소리 이 소리였구나
하는 순간
꽃비 내리는데
요놈의 벚꽃 잎 한 장 참도 달다

남쪽

20061124 여환정

남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

남쪽에는 많고도 많은
유적들...
나를 기다리는
유적들...

가끔 움직이지 못하게하는
피곤함...
하루종일 깨지않는
졸리움...

어둠속에서 나를 꺼내어준
풍경과 즐거움...
나는 어둠 속에서 나와
자유와 행복을 누비네...

문학여행

20061126 유지나

설레임 가득 가지고 버스를 탄다
며칠 전 힘든 일은 이미 잊은지 오래
마음은 벌써 전라남도 하늘 아래 있다.

면앙정에서 보길도, 벌교, 최참판댁까지
문학 작품의 모든 배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그곳에서 난 작가가 되고, 주인공이 된다

즐거웠지만 어딘가 모를 아쉬움...
3 박 4 일의 여행은
평생 간직하게 될 추억으로 남는다

한국문학탐방 기행문

20061125 연휘모

저는 이번 문학탐방을 하면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떠날 때는 지겹고 힘들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항상 맛있고 웰빙음식으로 나와서 좋았고 보길도 갈 때 탔던 배가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만에 탄 배라서도 그랬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며 맡는 바다냄새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좋아하거나 알고 싶었던 문학가들의 묘나 기념관, 생가를 갔을 때는 새로운 감회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분들처럼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를 경외감이 생기는 뛰어난 문학가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곳을 들르고 그곳에서 그분의 체취가 느껴지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가보고 싶었던 땅끝 마을이란 곳을 가보게 된 것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밟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하드라마 토지의 배경이 되는 화개장터를 구경할 때도 웅장한 기왓집이나 초가집을 볼 때 그 당시 선조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웬만하면 해보기 힘든 기회인 문학탐방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싶습니다. 게다가 산도 타고 배도 타고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과는 다른 정말 <웰빙>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답사를 다녀와서

20061128 윤 옥 철

난생 처음으로 수학여행 기간을 넘어가는 여행을 갔다. 이번에 새로 개설한 '한국문학탐방'과목에서 답사를 떠나는 것이었다. 하늘도 답사 가는 것을 축복하는지 날씨도 맑고 시원했다. 나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그래서 3 박 4 일 동안 이곳 저곳을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게 썩 즐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첫째 날은 송순의 유적지가 있는 담양으로 떠났다. 그리고 정철의 송강정, 김남주의 유적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해남에 도착하였다.

둘째 날은 윤선도의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보길도로 떠났다. 그 뒤에 고정희의 생가를 둘러보고 윤선도의 녹우장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적약용의 다산초당을 마지막으로 둘째 날의 답사를 마쳤다.

셋째 날은 강진에 있는 김영랑의 생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조정래의 유적지,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배경이 되는 순천을 들렀다. 그리고 조정래의 생가인 선암사를 방문하였다.
마지막날은 조태일의 시문학기념관을 방문하였고 김동리의 '역마'의 배경이 되는 화개장터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가 되는 평사리를 답사하는 것으로 3 박 4 일간의 답사를 마치게 되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은 해남과 보길도이다. 해남을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최남단이라는 것에 감흥이 안 갔지만 숙소에서 몇 발자국 걸으니까 보이는 바다와 '땅끝마을'이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이곳이 정말로 남한의 최남단이라는 것을 증명해줬다. 새벽에는 교수님과 같이 땅 끝을 밟으러 출발했는데 바닷바람이 상쾌했었다. 평소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내가 단지 땅을 밟아보겠다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난 게 믿기지가 않았다. 30 분 정도 걸으니까 땅끝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진짜 땅끝을 밟을 수 있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개의 바위섬을 제외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윤선도의 유적지가 있는 보길도로 떠날 때는 지루하기보다는 설레였다. 아마도 처음으로 배를 타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타보니까 자동차랑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말이다. 1 시간동안의 지루한 항해를 끝내고 보길도의 도착했다. 출항준비로 바쁜 어부들,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진걸 주워 먹기 위해 날라 다니는 갈매기들, 더위를 잊혀주는 바닷바람, TV 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광경들이었다.

윤선도의 유적지인 낙서재와 곡수당을 방문하였으나 그 흔적만 남아있었고 볼 만한 것은 없었다. 뭔가 씁쓸했었다. 동천석실을 가기 위해 산을 탔는데 경사가 심해서 위험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보이는 경치가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잊게 만들어줬다. 이렇게나 멋진 섬이 있는데 왜 정부는 제주도에만 돈을 쏟아 붓는지 모르겠다.

3 박 4 일. 지루하게 긴 시간이었던 같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간에서도 많은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 나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답사를 다니면서 단지 지루하다는 생각만 머리에서 맴돌았지 가슴속에서 보람차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나마 얻은 것은 한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자연의 절경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겨우 얻은 것이 경치감상이라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다. 4 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만약 다음에 한번더 답사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

답사를 회상하며

20051132 이원경

4 월 5 일 8 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전라남도를 향하여 출발했다. 큰 버스에 실려 가는 기분은 묘하게 설레었다. 1 학년 때도 다녀온 답사인데 그때보다 더욱 즐거울 거라는 예감이 나를 휘감았다.

답사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송강정과 벌교를 말하겠다. 송강정은 첫날 면앙정 다음으로 들른 곳으로 송강 정철이 4 년 동안 은거하며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 주옥같은 작품을 만들어낸 곳이다.

답사 첫날은 날씨가 더웠는데 송강정에 오르자마자 강한 바람이 우리의 머리를 흩날리고, 옷을 나부끼며 우리에게 환영인사를 했다. 더위를 한꺼번에 잊고 주위를 둘러본 나는 너무나 멋있는 풍경에 눈을 빼앗겨 버렸다. 엄청나게 큰 소나무들이 햇빛이 들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주며 송강정과 함께 서 있었다. 이런 곳에서 작품을 쓰면서 생활을 했을 정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곳에서 하는 발표를 듣고, 사진을 찍느라 구석구석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워만 사진 속에 그곳의 추억을 담는다고 생각하니 그러한 아쉬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했다.

벌교는 답사 3 일째 되는 날에 갔는데 기억에 남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태백산맥의 주 무대가 되는 벌교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 정말로 기뻤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태백산맥 전 10 권중 내가 읽은 것은 3 권이 조금 못 된다. 하지만 그 부분 모두가 벌교를 무대로 해서 그런지 더욱 좋았던 것 같다.

미리 조사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냥 다리네.'하고 말았을 건데, 알고 보는 것은 역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것을 비교하며 보기도 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이 총살을 당했다는 것(소설)을 상기하기도 하며 보니, 그것이 큰 의미가 되어서 나에게 다 가왔다.

다리위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흐르는 물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소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쁜 것 같으면서도 묘한 기분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많은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답사를 가는 것에 매우 많은 기대를 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답사였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느꼈다. 비로 3 박 4 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다닌 답사였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있어서 좋았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더욱 많은 곳을 좀더 많이 조사하고 보았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다. 내년 답사 때에는 스스로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여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시간은 새파랗구나

20051131 이범희

파란 도화지에
빛이 쏟아지는 하루엔
머리가 아프다

파란 도화지는 두 장인데

하나는 짙고 깊다
하나는 옅고 높다

깊고 높은 대상은
언제나 사람의 꿈이었다
이상이었다

그 사이를 가르는 바지선은
끌려가고 있다.

저 멀리엔 땅끝이 보인다는데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어디로 끌려왔던 걸까

꿈과 이상을 향한 끝없는 반역인가
이루지 못한 꿈의 우주인가

아마
태초부터 그랬을 테다

친환경 에너지

20051131 이범희

발전할 시간이다

직원들을 깨워라
각자 위치로
바이오매스는 가동되었다

이미 많은 시간이 메탄이다

깨닫지 못하고
노닥거린 시간은

무보수다

가솔린으로 몸을 불사르며
타올라라

크게 방화되며 발전하는 거야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와서

20061127 윤성준

나는 3 박 4 일 동안 국어국문 학우들과 전남지방으로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왔 다.

솔직히 갈 때는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갔다. 버스만 하루 종일 탈 것이 고, 맛없는 밥들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다.

우선, 직접 생가, 묘소를 찾아본다는 것이, 평상시에 익히 들어만 왔던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 분들의 생가를 직접 찾아뵌 것이 20 년 동안 살면 서 처음이었다. 왠지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찾아뵌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그리고 버스를 오랜 시간 동안 탔지만, 버스를 타면서 전남, 20 년 동안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풍경을 보니 재밌었기도 했다.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래도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한국문화탐방 정말 좋았었고 3 박 4 일 동안같이 활동하면서 학우들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다.

즐거웠다.

남쪽 끝에 문학세계

20051135 이현석

다가가고자 남쪽 끝에 다다랐다
선인들이 바라보았던 이 곳에
시 한 수 소설 한 편 지어진 이 곳에
내 마음을 놓아 버렸다

이런 곳이 있기에
멋진 작품들은
더욱 빛을 발하나 보다

주인 잃고 외로이 뽐내는
이 곳의 자태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또 다른 세계를 만들겠구나

갈대 女人

20051136 장희주

등이 야위어서
항상 건들건들
몸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

가을햇살
따사로운 향내를
고개 숙여 내리받고

뇌만 커져가는 머리를
몇 번이고 세수 대야에 박고는
혼자 울었다

끝을 보다

20031155 이진범

'시작'과 '끝'이란 단어는 어떠한 것이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처음'은 설렘을 갖게 만들고, '끝'은 허무함 혹은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흔히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들을 주로 하곤 하지만, 이에 대해 수긍하지는 않는다. 결국엔 처음보다는 마지막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06 년 4 월 6 일 '끝'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버드나무처럼 늘어선 동살에
흔들흔들
그 고운 가지 잡으려다 내딘 발이
살며시 젖어 들어
멍 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하,고 웃어본다

<自>

새벽의 소슬한 공기를 접하면서도 힘찬 발걸음이었다. 가끔은 산책로라는 표지판이나 바다 내음을 무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위의 어떠한 소리에도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끝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만 품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땅끝 기념비를 가리키는 이정표들과 뾰족한 무엇인가가 보였다. 이때부터 내딛는 걸음마다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계단의 층수를 세어 내려가면서 그제야 바다의 내음을 맡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가 기념비에 손을 대어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했으며, 마음의 종지부 2)를 찍는 것이기도 했다.

기념비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육지의 끝에서 섬(보길도)으로 가는 일이 그러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몸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 졸업을 앞두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물론 기념비를 만졌다고 해서 내가 닥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념비와 그 앞에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봄의 설레임을 안고오다.

20061132 이승희

지난 3 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4 월 5 일, 3 박 4 일의 일정으로 한국문학탐방을 갔다 왔다. 출발할 때는 아침 일찍 모여 담양으로 향했다. 거의 담양에 도착 할 때까지 버스에서 잤다. 담양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다. 도착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다. 그리고 면앙정가에 도착했다. 아직 공사중이여서 면앙정가비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첫째 날에서는 식영정이 가장 인상 깊었다. 식영정에서 내려다보이는 강가의 모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때 마침 봄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시간이 초저녁쯤 이여서 풍경이 한층 더 멋있어 보였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분주하였다. 배를 타고 보길도에 가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아서 배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바다와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배에서 내린 후 세연정으로 향했다. 세연정은 입구부터 많은 나무와 동백꽃이 가득 피어있었다. 그리고 정자와 그 주의를 흐르는 인공연못은 고산의 개성적인 풍류를 느낄 수가 있었다. 세연정을 돌아다니면서, 교수님이 멋진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셔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가 있었다. 보길도에서 여러 곳을 관람하고 다시 배를 타고 와서, 고정희 생가 등 많은 곳을 다녔다. 숙소에 도착하고 씻고 바로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도 여러 곳을 보았다. 그 중 우리 조가 조사한 김승옥 작가와 관련된 순천 대대포를 구경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내가 조사한 갈대밭은 사진에서 본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사진을 보면서 넓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눈앞이 온통 갈대로 뒤덮여있었다. 만약 가을에 왔었 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숙소 근처에 있는 선암사에 갔다. 선암사 를 올라가면서, 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연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선암사에서 물도 마시 고, 사진도 찍으면서 봄나들이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지막 날에 토지의 무대였던 하 동을 가면서 보이던 차창밖에 풍경은 동화책의 한편의 그림 같았다. 벚꽃이 봄바람에 날려 서 떨어지는 모습은 꽃놀이를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하얀 배꽃이 피어 있는 모습은 꼭 눈꽃이 내린 것 같았다. 대학생이 되면 꼭 친구들이랑 진해의 벚꽃축제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탐방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꽃놀이를 즐길 수가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때이었다. 기숙사에 와서 짐을 풀면서 지난 3 박 4 일 간의 탐방이 봄 여행을 갔다온 것 같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봄바람도 불고하여 탐방하면서 꼭 봄 소풍 을 온 것 같았다. 한국문학탐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 다. 한국문학탐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4 월의 봄의 설레임을 안고 왔다.

탐방을 다녀와서

-땅을 밟으며 배운다.

20051137 전석민

국문학과에 알맞은 탐방은 시작되었다. 김남주 시인부터 토지의 박경리까지 참으로 많은 문학가들의 숨결을 느끼고 돌아왔다. 한편으로는 3 박 4 일이라 부담도 되었지만 다녀온 뒤 문학작품과 한걸음 더 가까워 진 것이다. 수업시간 외에도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그곳에서 성장하였던 문학가들의 이름이 떠오를 만큼이나 친해진 것이다.

연암관 앞에서 국문학과는 모였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많이 오셔서 버스 두 대가 가득 찼다. 첫 설레는 그 느낌을 갖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광주광역시 담양에 도착하였다.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그런지 낯설고 지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광주라는 이름에 무언가 강력한 기운이라도 있는 듯 우릴 힘나게 해주고 있음을 느꼈다. 식사는 비빔밥으로 하였고 역시 밥맛은 꿀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면앙정에 올라 사나이의 포부도 느꼈다.

둘째 날이 되었다. 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전 날에 선배님들은 음주를 하신 것 같았다. 우리 선배님들을 보았을 때, 문학과 술을 떼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인들이 그렇듯…….

해남. 이 곳 또한 처음 가본 곳이다. 한국은 좁지만 꽤 밟을만한 곳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세연정의 에메랄드 빛 물을 배경으로 문학을 느껴갔다. 저녁엔 해남으로 이동하여 땅 끝의 냄새를 맡았다. 바다의 냄새와 혀로 느끼는 회의 맛 또한 끝내 줬다.

해남에서 하루가 지났고 새벽에 일찍 교수님을 따라 땅 끝의 바다를 향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에 일찍 잠들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설레는 느낌에 기어코 새벽 2 시를 보고 잠들었다. 새벽에 겨우 부은 눈을 비비며 땅 끝의 전망대로 향하였다. 바다와 새벽의 향이 코를 시원하게 만들었다.

장보고 호를 타고 완도를 향하였다. 20 분간의 뱃놀이가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듯했다.

김영랑은 참으로도 아름다운 곳에 살았다. 갈대가 꽉차있는…….

아쉽지만 해는 매일 뜬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이다. 답사 기간 동안 날씨가 우릴 도왔다. 마지막 날에도 화창한 날씨 속에 버스가 달렸다.

하동의 화개장터는 그 곳의 벚꽃축제 행사로 인하여 들리지 못하고, 소설 속에 등장한 그 삼거리만을 이정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가 되었던 평사리의 최 참판 댁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토지란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트장이 아직 남아 그대로를 재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쇠가 나와 우릴 맞이하여 줄 것만 같았다. 토지를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 전에 갔던 태백산맥의 무대가 되었던 곳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으나 토지부터 어서 시작하여 문학의 기본을 다져야겠단 생각을 하였다.

일정의 고단함을 모른 체 자연과 문학과 하나가 되어 답사일정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황사가 좀 불긴 했지만 날씨도 우릴 반기는 듯했다.

이번 답사를 끝으로 가보지 못한 땅을 밟은 것에 대해 많은 자긍심과 문학인들의 정신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가볍게 여기고 갔던 터라 후회도 조금은 되지만 다음 답사를 생각하였고 다시 한 번 문학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계기였다.

사월에...

20061133 이영수

4 월에 떠나신 그대여
오늘은 볼 수 있을까
차창에 기대서 상념에 잠긴다

차창 밖 풍경, 오색 물결들이 춤춘다 아아,
아름다워라
아아, 아름다워라

아마, 그것은 떠나간 그대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

내 마음도 오색
물결처럼
어떠한 반가움에 취한다

바람이 섧다

20037003 허승범

봉산의 깃 자락에 고즈넉한 해 그늘이 지고
곳곳마다 처마 끝 반딧불 모아드리면
덕대골 비목의 울음소리 들리는 듯

매섭게 날이 서있는 바람도 불안에 떨며
넘어가지 못해 조용히 서러운 눈물 감추던
비무장 지대를 아는가

무성한 초목과 靜寂(정적)의 화합만이 허용된
반 백년 현실의 괴리와 모순 앞에
뜻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오랜 세월 온몸으로 새겨
상처 입은 老松(노송)을 부여잡고
흙이 되기도 부끄러운 미물이었음을 느낀다

고요할 수 있단 말인가
헤아릴 수 없이 어긋나온 역사에
가슴이 찢긴 채

쓰러질 듯 달려온 여로가
작은 눈망울에서 자꾸만 산산이 부서지는 듯
이곳 바람이 섧다

여 유

20051125 양정희

그들 앞에 당도 했을 때 내 몸을 휘감는 그 무언가가, 말할 수 없이 다가왔다. 빠져나간 물 틈 위로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드넓게 펼쳐진 모습을 한 눈에 담아내기 힘들어 다시 한번 눈을 치켜들고 발을 치켜세우며 모두 담아내기 위해 나는 애를 쓴다.

나의 욕심 이었을까…… 머리로 생각했기에 나는 그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마음으로 보니 키가 작은 것에서부터, 키가 큰 것, 머리가 구부러진 것, 꺾어져 있는 것, 색이 변한 것까지 제각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는 휘바라치는 바람결을 맞으며 아래는 세차는 물결에 치이며 그렇게 흘러가는 데로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몸은 꺾이지 않으려는 듯 머리를 이러 저리 흔들어 가며 유연하게 대처한다.

더욱더 세심히 들여다보니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 홀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 머리를 맞대어 몸을 의지한다. 어느 다리가 제 것이지 어느 머리가 제 것인지 몰라 혼돈이 된다.

그렇게 엮어 가며 그들은 하나를 이룬다. 그것들이 어우러져 드넓게 펼쳐 나아간다. 머리 위에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햇살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고결하다. 지금 나는 그 펼쳐져 있는 황금밭을 가로질러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레 내딛는다.

빽빽한 건물들 틈에 사이에서 바삐 움직여 사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 무엇이 나의 발검음을 그렇게 재촉했던지 주위 것은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곳에 와 비로소 지난날의 일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걸림돌 없이 평평하게 높이 깔린 황금밭을 보며 그동안의 묵혀왔던 마음을 풀어낸다. 마음을 쏟아내니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이 내게 다가왔다. 바람결에 부딪쳐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닷물이 잔잔히 흘러가는 소리,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의 날개짓, 나의 피부에 스치는 바람, 코 끝을 찡긋하게 하는 바다 냄새, 얼굴을 간지럽 히는 머리카락의 휘날림 …… 나의 온몸은 살아있는 감정이 되어 갈대를 스치는 손끝하나에도 나의 마음에 변화가 온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부질없는 근심 걱정에 얽메여 있는 내가 서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난날의 후회로 스스로를 졸 라 메었다. 그러나 이곳에 와보니 그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는다.

바람에 몸을 맡긴 갈대가 만약 바람과 대적한다면 줄기는 꺾이고 고통만 느낄 뿐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이치에 맞게 살아가기에 갈대에게서는 여유가 풍겨져 나온다.

그 갈대를 보고나서야 비로소 나에게도 그 여유가 물들어진다. 그것을 흡수하니 마음에 평정을 얻게 되고 한 걸음 물러나 나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삶에서 잊고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을 선사해 주었다.

내 생에 처음 가본 해남

20061134 이 은영

이제 날도 많이 풀린 4 월 5 일 나는 전라남도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처음 학교를 들어올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문학 탐방을 가는 것이다. 수강신청을 하면서도 그랬고 전라남도행 버스를 타면서도 나의 생각은 변함없이 좋은 경험일 것임을 확신하였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도 우리나라 한번 다 돌아보지 못한다는데 비록 빡빡한 일정일지라도 내가가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 땅을 밟고 느끼고 온다는 것 자체가 내겐 행복한 일이었다.

설레는 맘으로 내가 탄 버스는 빠르게 움직였고 숙소에 가기 전에 면앙정가 시비도 보고 김남주 시인의 묘소에도 가보았다. 첫날 이라 그런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긴 했지만 차츰 답사의 목적을 알고 적응하였다. 아침에 출발했던 우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하였다. 해남은 나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왠지 더 오고 싶었던 곳이었다. 어렸을 적에 와보긴 했지만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아른 거렸기 때문이다. 오랜만의 버스 여행이라 그런지 피곤하여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 하였다. 다음날 일찍이 눈을 뜨고 우리는 배를 타러갔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인가.. 배로 2 시간을 가야하는 보길도행. 바닷바람이 꽤 쌀쌀했지만 그럭저럭 상쾌했다. 그리고 도착한 세연정은 정말 멋진 곳이었다. 과연 윤선도는 “부자였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 그 큰 연못과 장황한 풍경은 절로 감탄을 자아냈으니 말이다. 동천석실이란 곳을 갔는데 보길도 지에 의하면 공(윤선도)은 이곳을 몹시 사랑하여 부용동 제일의 절승이라 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수시로 찾아와 놀았다. 이곳에 앉으면 온 골짜기가 내려다보이고 격자봉과는 나란히 마주하게 되며 낙서재 건물이 환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대체로 사건이 있으면 무민당과 기를 들어 서로 호응하기도 했다. 공은 때로는 암석을 더위잡고 산행하기도 했는데, 발걸음이 경쾌하여 나이가 젊은 건각들도 따라가지 못했다 한다." 라고 한다, 그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경 또한 최고였다. 산행이 조금 험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하나의 경험이 나에게 생겼으니 그저 좋을 뿐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빡빡한 일정은 산행을 마친 뒤 돌아오는 배 안에서 피로가 몰려왔다. 한숨 자고나니 벌써 토말이었다. 토말에 도착한 뒤 다산초당에 갔는데 이곳도 약간의 경사진 곳을 올라야 하는 곳이라 나는 다시 한 번 피로감을 등에 업고 올라야했다. 하지만 다 오르고 나니 시원한 그곳의 공기는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그리고 느낀 점이 있다면 귀향이라도 그렇지 어찌 이리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뿐이었다. 셋째 날 간 곳 중에는 선암사가 가장 좋았다. 절이라는 곳이 왠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 같았는데 한동안 지쳐있던 내게 잠시 동안의 평온을 주는 것 같았다. 조정래 생가 터에서는 비록 그 자취는 별로 없지만 과연 “참으로 여유 있는 곳에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은 조용한 곳이었다. 또한 무진기행의 무대가 되었던 곳은 넓게 펼쳐진 갈대밭이 정말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갈대들을 실제로 보긴 처음이라 신기할 따름이었다. 정말 내가 소설의 무대가 되었던 곳에 온 것인가 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잠시 거닐며 걷는 것 도 기분이 좋았다. 우리의 셋째 날 여정을 끝마치고 맛난 밥을

먹으며 우리의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넷째 날이 되었고 정말 다들 지쳐보였다. 나는 버스만 타면 잠이 쏟아졌다. 그러다 화개장터로 가는 그 길가에 펼쳐진 벚꽃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탄하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내다본 창밖의 벚꽃은 절경이었다. 내가 이 탐방을 하면서 본 풍경 중 가장 멋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탐방하는 내내 날씨도 좋아서 무리 없는 여정이었다. 다만 많은 것을 보려다 보니 일정이 너무 빡빡했던 것만 생략 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여정이었다. 내가 밟아보았던 땅들과 보았던 풍경, 스쳐온 공간들 모두가 기억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昏　　沈
-식영정에서-

20037002　최동호

산 너머 남촌 끝자락
구름이 머물던 골짜기 내려와
노오란 개나리 인사하고
이름 모를 산새 춤추며 노래한다

안개비 흩어진 들녘 한 자락
뽀얗던 얼굴 목련꽃 밝아
덩실 덩실 춤추던 봄나비 한상
봄을 품고 있다

동문 밖 마을 어귀즈음
메마른 장승처럼 고즈넉한 노송나무
가지마다 쭈빗 쭈빗 솔잎타고
매달려 있는 방울빛 햇살
설빔 곱게 차려입은 소녀의 미소처럼
봄을 타고 반짝인다

탐방을 다녀와서...

20061136 이혜림

4 월 5 일, 드디어 기다리던 탐방을 가게 되었다. 기대에 찬 내 마음을 하늘도 아는 듯 날씨는 무척 맑고 따뜻했다. 전라도를 향해 출발!! 1 시쯤 담양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 되었다. 처음으로 도착한 탐방지는 면앙정 이었다. 더운 날씨였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마음은 가볍기만 했다. 아쉽게도 정자는 공사중이었다. 면앙정가 시비도 보았고 직접 만져도 보았다. 둘러본 후, 면앙정을 출발하여 김남주 묘소에 갔다. 그곳에서 김남주 시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시인은 떠났지만 생전의 김남주 시인을 잘 느낄수 있도록 붉은 띠가 묘비에 둘러져 있었다. 담양을 출발하여 몇 시간을 달려 숙소에 도착하였다. 짐을 풀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그렇게 첫날은 지났다. 둘째 날, 탐방 중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보길도에 갔다. 배를 타고 보길도를 향해 가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오랜만에 바다도 실컷 보았다. 드디어 보길도에 도착! 배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세연정에 도착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부사시사”의 시비를 보았다. 듣기만 했던 것을 실제로 보니 재미있었다. 그리고 보길도의 유적들을 둘러보았다. 교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자연속에서 지내며 글을 썼을 옛 그들을 생각하니 절로 부러움이 느껴졌다. 꽃이 만발하고 새소리가 나고,,, 정말 아름다웠다. 보길도에서 나와 고정희의 생가에 도착했 다. 고정희가 살았던 곳, 내가 서있는 이 자리에 고정희 시인의 자취가 있다니 감회가 새로 웠다. 그리고 다산초당에 갔다. 약간 높은 산이어서 힘들었는데 도착하고 나니 아름다운 풍 경과 저절로 불어오는 산바람 때문에 기분이 상쾌했다. 발표를 하고 옆에 약수물이 마셨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했다.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하나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세 번째날, 강진으로 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인 김영랑 시인의 생가에 도착하였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계속 머릿속을 맴 돌았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 영랑 생가를 지나 무진기행의 무대가 된 대대포로 갔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소리 마저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선암사 숙소에 갔다. 짐을 풀고 걸어서 선암사에 갔다. 선암사 화장실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고, 예쁜 꽃이 핀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 선암사는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 숙소에 들어와 만찬을 하고 교수님과 탐방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가 한방에 모였다. 각 조의 조장님들이 한명씩 이번 탐방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하였고 탐방의 마지막 밤으로서 친목을 다졌다. 친목의 밤이 지나고 아쉬운 마지막 날,, 먼저 조태일의 시문학 기념관에 갔다. 기념관 안에는 조태일이 생전에 차던 손목시계, 읽던 책, 들고 다니던 가방 등 여러것들이 있어서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역마의 배경인 화개장터를 지나 최참판댁에 도착하였다. 노래로 익히 들어온 화개장터를 둘러보고 싶었으나 벚꽃축제로 너무 복잡해서 그냥 스쳐지나 가기만 했다. 최참판댁은 무지 넓고, 높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조가 맡은 김동리에 대한 발표와 박경리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탐방은 마무리 되었다. 탐방을 통하여 평생 못 가봤을지도 모르는 여러곳도 가보고, 말로만 듣고 배우기만 했던 곳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여러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국문학을 배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 배경을 알고 직접 닿아 보는 그런 기회였다. 대학교에 와서의 첫 탐방. 앞으로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相思
-다산초당 천일각에 서서…

20051140 조혜근

마음만 먹으면 못 볼 것이 없는 이곳에서, 어디 계시기에 이토록 안보인단 말입니까
내 평생에 가장 오랜 벗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이 몸을 버리고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저 산허리를 넘으면 볼 수 있을까요, 저 물을 따라 흘러가면 볼 수 있을까요

형님,
하늘에 반딧불이도 한없이 만나는 밤입니다.
나만은 형님을 만날 수 없어 오늘도 이 언저리에 발바닥을 맞대고 섰습니다.

산

20051139 정혜인

문득
무엇인가를 담고 싶은 생각에
텅 빈 동공을
또로록 또로록 굴려
시리도록 푸른
먼발치의 산에 초점을 맞췄다.

순간
나의 동공은
이유모를 짠물을 끄집어냈다.

감히 담을 수 없는
거대하고 웅장한 아름다움.
그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움직거리고 있는 내 모습.

동공은 내 스스로가 느끼기도 전에,
벌써부터 겁먹어 짠물을 끄집어 낸 듯.

텅 비어있던
내 동공은 어느새
시리도록 푸른 산과 짠물이 범벅되어
하나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토지를 떠올리며.....

20061138 전새롬

색색들이 피어있는 꽃 속에서
나는 소설 토지를 떠올린다.

최참판댁의 화려한 집에서
그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

박경리의 소설세계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토지의 배경

나는 다시 한번
소설 속 토지를 떠올린다.

무진에 가면

20061140 최강철

무진에 가면
볼 수 있으려나
희망에 가득 찬 빛을

무진에 가면
만질 수 있으려나
따스한 그 무엇인가를

무진에 가면
느낄 수 있으려나
사람들의 인정을

무진에 가면
잊을 수 있으려나
세상살이에 찌든 고뇌를

그러나 그러나
그곳에선 그 무엇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느낄 수도, 잊을 수도 없었네

다만 갈대와 바람이
안개의 품안에서
서로를 스치며, 부대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네

아이

20061142 하성민

홀로있는 아이는
인간의 손에 따뜻함을 가지게 만들어져
인간에게 다시 더럽혀 지고

더럽혀진 아이는
바람의 차가움과
함께 식어버린다.

식어버린 아이는
꽃이 피는 나무와 함께
다시 따뜻함을 가지게 되었지만

따뜻함을 가진 아이는
다시 인간의 손에 더럽혀질 뿐이다.

역경을 딛고
(동촌석실을 다녀와서..)

20061143 한 민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그 곳
소매로 땀을 훔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곳을 향해간다.

급한 경사의 오르막길과
그 경사에 있는 바위들이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곳을 향해간다.

힘들게 도착한 그 곳
부용동이 한 눈에 보인다.
그 곳에서의 경관은
힘들게 그 곳을 향해가던
내 발 내 땀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바위 밑으로 흘러나가는 물
오솔길 건너편의 연못
한사람만 갈수 있을 크기의 돌계단
하나하나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곳에 도착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한다.

역경을 딛고
무언가를 달성한 후에는
언제나 그렇듯
성취감과 뿌듯함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낀다.

한국문학 탐방을 다녀와서.

중국학과 20031214 김보라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인 만큼 좀 특별한 수업에 참여하고 싶었다.
수강신청을 하던 중 '한국 문학 탐방'이라는 수업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전에 친구에게서 그 수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고 마침 내가 찾던 1 학점짜리라 교수님께 문의 메일을 드렸었다. 타과생 인데다가 아는 사람도 없이 3 박 4 일이라는 일정에 참여한다는 게 좀 망설여지긴 했었지만 타 학과와는 다르게 타과생도 당연히 환영하신다는 교수님의 답글에 기분 좋게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몇 차례 모임을 거친 뒤에 4 월 5 일, 일정이 시작 되었다. 나무며 산이며 꽃이며 들이며 온통 봄 분위기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념이 없는 틈에 탐방 팀을 실은 버스는 아래로 아래로 계속해서 내달렸다. 햇살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학기라 개학 때부터 눈 코 뜰 새 없이 시간에, 수업에, 과제에 쫓기며 지내던 나에게 있어서 숨통을 확 트여주는 행복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평소에 너무나 벚꽃을 좋아했지만 벚꽃이 한창일 때면 늘 중간고사 였었고, 시험이 끝나면 벚꽃은 이미 져 버려있어서 늘 아쉬웠던 나에게 벚꽃을 맘껏 보고 즐길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국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다 인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게 한정 되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좀 더 답사한 곳에 대해, 그 작품에 대해, 작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그 한 곳 한 곳 발로 직접 디뎌서 찾아갔을 때 느끼는 것들의 깊이와 범위가 한층 깊고 넓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내내 들었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느껴 볼 수 있었을 국문학과 학생들이 참 부럽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방문했던 곳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시간을 내서 스스로 하나씩 접해보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쉬울 테니까...

너무 좋은 곳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지적 풍요로움에다 정신적 여유로움 까지 제공해 주는 수업이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도 주변 사람들 에게 이 수업 꼭 들으라며 추천해 주고 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 학기에 특별한 수업을 경험하고 싶었던 내 욕심은 충분히 만족되었다.

섬진강가에서..

20021569 이재우

섬진강 물줄기 따라 펼쳐진 너른 모래톱.
햇살에 반짝이는 저 강물은
얕지도 않은 것이, 깊지도 않은 것이
아무 말 없이 수우이 흘러가는구나.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는 듯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민중들의 울부짖음과 한을 잊은듯
역사속의 눈물을 감추어 두고서
무덤덤히 그 자리에 머무는 구나.

평화로워 보이는 네 모습에
내 마음 어딘가에서 솟는 무언가를
너에게 보내어 흘려 보내고
마냥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나에 있는 애처로움 널 보며
어린아이 웃음과 장터의 웃음에
모든 것 삼키고 멀건히 흘러가니
나도 그려려니 하며 흘러가고 싶다.

저무는 애환따라.
훌훌 털어 버리리라.

외팔이 영감

20031162 장보영

일전에 내 머릿속에 없던 기억 하나가 슬그머니 떠오른다. 문득 그리워 안부를 물으려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살지 않는다.

그 사람. 골초에 술 주정꾼이었다. 나이 70 이 족히 넘었으면서도 환갑을 어제 치른 할아버지께 "형님요. 형님요." 굽실거리는…. 허리마저 시원치 않아 시도 때도 없이 동네 보건소를 찾아야 했다.

평소 품성 고운 할머니도 볼 때마다 죽지도 않는다고 윽박을 질렀다. 그래도 "그 인간도 사람이지." 마음에 미안한 구석이 조금은 남는지 할머니는 그에게, 할아버지와 동무해서 기울이는 술상에 안주 삼으라고 숭숭 자른 김치 한 접시를 내미셨다.

주머니가 궁해 태우는 담배도 200 원 하는 솔담배다. 그래도 만물상에서 700 원 하는 소주를 매일 한 병씩 외상을 달았다. 하루를 술에 담그는 그를 가리켜 동네 사람들은 '외팔이 영감' 라고 불렀다.

멀리서 그가 오는 기척을 덜렁, 저 혼자 흔들리는 팔소매를 보고 알았다. 질끈 동여맨 소매 자락, 물이 다 빠진 나일론 잠바 하나로 그는 여름을 나고, 겨울을 견뎠다.

여섯 살 난 꼬마아이부터 중학생 아이들까지 '외팔이. 외팔이' 하며 그를 조롱했다. 그래도 머리가 제법 컸다고 동네 유일한 고등학생 아이가 어린애들을 나무랐지만 녀석도 노인 근처에는 감히 가지 않았다. 그저 측은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늙지는 않을 거야. ' 하고 의지를 재차 다지듯이.

그를 둘러싸고 소문만 무성했다.

"아들이 지금 법관이라더라. 딸은 어디 대학 교수라더라. 자식들이 도망갈 만도 하지. 아비가 오죽 못났으면. 내다 버린 거지 뭐" 술에 취해 비틀대는 그를 향해 동네 아낙들은 수런거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대꾸하지 않았다. 오직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였다. 우리 집 대청은 오후가 되면 그의 공간이다. 점심을 먹고 걸어서 두 시간 걸리는 고갯마루를 굽이굽이 넘어 그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형님요. 형님요.”

할아버지 농사일 더디게 한다며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에게 실컷 욕을 퍼부었다. 아마 나는 살아서 들을 수 있는 욕은 그 때 다 들었을 거다.

내가 여덟 살 되던 해 여름이었을 거다.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는 모판 들고 일을 나가셨고, 읍내 장에 다녀오신다며 할머니도 집에 계시지 않아 홀로 집을 보던 날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여느 때처럼 방문한 외팔이 영감은 대청에서 해가 저물 때 까지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심어놓은 꽃도 들여다보고, 담배도 태우고 하다가 지루했던지 그는 내게 처음으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가까이서 목소리 듣는 것은 이 동네 또래 아이들 중 내가 처음이었다. 나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고 손가락 여덟 개를 내밀었다. 몇 분의 고요가 흘렀다. 갓 학교에 입학했으니 공책이라도 한 권 사라며 쥐어주는 동전 200 원은 따뜻했다.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만지작, 외팔은 망설였나보다.

그때부터 그가 우리 집을 찾으면 나는 도망가지 않고 곧잘 인사를 했다. 우린 친구가 되었다. 그도 내가, 저에게 돌멩이 던지는 여느 아이들 같지 않음을 알고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가 빠진 그 모습이 더 이상 우습지 않은 때가 왔다. 그에게서 측은함을 읽은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참이 지난 후였다.

“내일 집에서 팔순 잔치 연다오. 와서 밥이라도 잡수고 가쇼.”

처음으로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건 것은 생일 초대 때문이었다. 탁하고 갈라지는 그의 목소리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귀를 의심했지만 그는 서른 가구 채 안 되는 마을 구석구석을 아주 열심히 돌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매 자락을 한 손으로 부여잡고 성치 않은 다리로 그는 자신의 여든 번 째 생일을 세상에 알렸다. “밥이라도 자시고 가쇼. 고기라도 자시고 가쇼.”

찬바람 이겨내며 겨울 언덕을 넘은 사람은 다섯 명이 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작은 오두막. 방은 냉골이었다. 판자로 엉기성기 지어 올린 집에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며칠 전부터 술도 입에 대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씨암탉 두 마리를 샀으니 많이들 먹고 가란다. 혼자 지낸지 꽤 오래되어 음식 솜씨가 제법 좋다. 잔치는 조촐했다. 닭은 많이 남았다. 할아버지가 건넨 소주 두 병을 기울이며 그는 결국 서운함을 토해내며 울었다. “못됐

다. 못됐다. 노인 대접을 그리 하는 게 아냐". 초라한 생일 상, 식은 고기 국을 앞에 놓고 그는 한 입도 대지 못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그는 다른 말이 없었다.

그의 집에는 아내로 보이는 고운 여자의 사진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 생사를 감히 물을 수 없었으나 여인의 눈매는 노인과 퍽 닮았다. 그 사진 옆에 그의 모습이 걸린 것은 잔치 후 열흘이 조금 넘어서였다. 그렇게 술을 자시더니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앓은 지 꽤 되었다는 데 할아버지에게도 아프다고 내색 한 번 안했단다. 미운 정 실컷 주고 떠났다며 할머니는 뒤늦게 외팔이 영감을 두고 크게 울었다. 처음 이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은. 그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떠나던 그 해 설날이었을 거다. 어느 때 보다 눈에 비친 햇살이 눈부시던 날. 엄마가 챙겨준 설빔을 입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 대문을 두드리는 이는 외팔이 영감이었다. 떡국 드시러 오셨냐고, 이날만큼은 할머니도 그를 크게 내치지 않았다.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으로 TV 는 시끄러웠다. 그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외팔이 영감이 화면을 턱 가리고 앉아 자신 앞에 놓인 몫의 음식을 남김없이 잡수신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예의 상 세배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넙죽 허리를 숙이는데 그 마저도 건너편에서 고개를 굽실굽실 거린다. 괜히 미안해서 "오래 오래 사세요." 큰 목소리로 오래 오래, 연거푸 두 번을 되풀이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연신 고맙다. 고맙다. " 뿐.

어리던 날, 내게 공책 사라며 200 원을 건네 준 그 외팔은 이제 꼬깃꼬깃 접힌 만원을 내게 쥐어준다.

"고마워. 응? 고마워". 무엇이 그리 고마운 걸까. 예의 풍습에서마저 소외되며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한 아픔 때문인지, 그의 눈에는 잠깐 이슬이 고였다. 건네주는 만원에 속으로 '이 돈이면 할아버지 외상 술값도 다 갚겠어요'. 하고 받을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났다. 그래도 영감은 끝끝내 물러나지 않고 마련한 용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가난한 사람은 추석도, 설도 가난했다. 타지로 시집간 자식들이 돌아오는 명절, 사람도, 나누는 음식도 풍요로운 우리 집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뿐인데 노인은 마치 자신을 위한 잔치인 듯 허허, 연신 즐겁다. 가족간의 따스함을 뼈 속 깊이 느끼는 사람. 정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워 저녁이 되도 그는 돌아갈 줄 몰랐다.

아직도 내 기억에 오롯이 각인된 목소리. "꼬맙다. 고맙다." 무엇이 그리 고마웠던 걸까. 7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돈만은 차마 쓰지를 못하겠다. 영감이 죽고 그가 살던 오두막도 사라지고, 구멍가게 그의 이름으로 달린 외상값 장부도 사라졌다. 만원, 마치 영감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물 같다. 설날, 그 스스로 '어른' 이 되고 싶어, 대접 한번 받고 싶어 또 얼마나 오래오래, 그 좋아하는 술을 며칠씩 참고 돈을 모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쉽게 그 만원을 쓸 수가 없다.

할아버지 앞에서만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았던 걸까. 그는 무슨 말을 그리 하고 싶었던 걸까. 팔십이 넘어도 제 하고픈 말을 다 남기지 못하고 세상 떠난 외팔이 영감. 세상 저 너머에서도 그리 좋아하던 술 입에 달고 사시려나. 이제는 고운 아내 곁에서 외롭지 않으려나. 이런 저런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문득 그가 그립다.

외팔이 영감님

저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둡니다. 용돈으로 공책 값 받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보다 많이 올라 이제는 한 권에 500 원 이에요. 그새 300 원이 올랐어요.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의 길이가 제법 되네요.

그곳은 따뜻한가요? 할머니가 술 그만 드시라고 잔소리 하셔서 퍽 좋지도 않겠어요.

가끔 할아버지 댁 대청에 앉아 있노라면, 아직도 당신이 대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요. 돌아보면 바람 소리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외팔이 영감님 돌아가시고 약주를 더 많이 드신답니다. 동무가 없어 적적하신 것 같아 가끔은 제가 술친구가 되어드려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외팔이 영감님이 그리운가 봐요. 하나 남은 왼팔로 젓가락질 잘했다는 당신 모습이 다시 보고 싶대요. 마을도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이사를 갔고요. 이제는 어린 아이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때 콩나물 팔고 농사짓던 아주머니들 머리가 희끗해요.

가끔, 당신이 동여맨 소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면 그냥

낙엽이에요. 가을도 이제 다 가고 엊그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날이 몹시 추워 영감님의 나일론 잠바 가지고는 얼어버릴 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은 따뜻한가요?

토지의 추억

국어국문학과 20061144
함다미

처음에 조를 배정받고 나서, 난 설렘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바로 내가 토지의 유적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토지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거대한 스케일과 16 권에 달하는 분량에 난 한때 토지에 들떠 있었다.

토지는 가장 마지막 날의 일정이었다. 그래서 부풀었던 기대와 마음과는 달리 난 버스 한 귀퉁이에 몸을 기대고는 창밖구경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청했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의 탄성에 눈을 떠보니 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벚꽃과 함께 등장한 이정표는 최참판댁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최참판댁에는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답사일행은 전원 걸어서 최참판댁 까지 올라가야 했다. 날씨가 유난히 뜨겁고 더워 힘들었다. 게다가 최참판댁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토지가 1969 년 부터 집필이 시작되어 출간된 지 40 년이 다 되어감에도 토 지의 인기와 열기는 식지 않아 나는 또 한번 토지의 위력을 실감했다. 최참판댁에 모인 수 많은 인파는 나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순간 검은 점으로 보였다. 나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의 점이 되어 소설의 줄거리와 배경인 최참판 가의 몰락과 재기, 일제강점기와 독립운 동 길상과 서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생각하며 여기저기 바삐 옮겨 다니며 구경을 했다. 실제로 박경리씨가 이 곳을 방문하고는 자신이 상상했던 최참판 댁과 너무도 흡사해 놀 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곳 하동 최참판댁은 드라마의 세트장으로도 쓰였던 곳인 데, 나도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깔끔했다. TV 에서 본 최참판 댁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 다는 것에 감격하며 소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웅장한 풍경에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최참판댁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입구와도 같은 행랑채의 바깥모습, 별당아씨와 서희가 거주 했던 별당과 연못, 안채, 그리고 최참판댁에서 내려다보이는 억양들 등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역시 평사리를 주름 잡았던 대지주의 위엄이 떠올랐다.

각자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평사리 문학관도 가고 싶었지만, 문학관을 구경하는데 에는 시간이 걸렸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나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답사 일행은 김훈장집 앞에서 멈춰서 발표를 들었다. 인문대회장님과 보영언니의 발표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지식을 주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다.

최참판댁과 용이네 , 김훈장댁 등을 둘러보며 나는 토지의 인물들 길상, 용이, 최참판, 월선, 김훈장 등이 지금까지 평사리에 살아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문학작품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읽고 그 배경이 된 곳을 한번 답사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바라보면 억양들도 볼 수 있고 그 동네 주위로 멀리 마을까지 다 내려다보이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까지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한 뒤 평사리를 또 찾아봐야 겠다.